

「복음찬미」에 나타난 가사의 특징

김 남 수

<교회음악·부교수>

서론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복음찬미」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찬송가를 3분법에 의해 ‘찬송, 복음찬송, 복음성가’로 분류할 때 ‘복음찬송’을 알고 있지만 ‘복음찬미’라는 낱말은 생소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작은 것의 귀함을 쉽게 잊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큰 것을 원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 잡혀, 작은 것은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악보 없이 가사만 실려 있는 「복음찬미」라는 찬송가책이 초기 한국 찬송가책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침례교의 전신이라는 동아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 강한 도구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¹ 1920년대 말 이현태 교사가 순교한 후, 그의 가족은 「복음찬미」를 가지고 전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후에 박병식 감노는, “「복음찬미」는 한 장으로도 넉넉히 거둬낼 수 있다”는 간증을 함으로써, 모든 교회들이 찬미공부하기에 더욱 힘썼다. 김갑수, 「한국침례교 인물사」(대전: 시와 평론사, 1981), 103.

무리가 많지 않고 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교회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펜워이 『복음찬미』에서 애용한 성삼위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 ‘예수씨,’ ‘숨님’이다. 특히 ‘예수씨’와 ‘숨님’은 그가 번역한 성경, 가르친 사경공부, 교단 사업의 홍보와 신앙성장을 위해 달마다 보낸 달편지, 그리고 『복음찬미』의 모든 찬송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칭이 그 당시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복음찬미』(1899) 초판이 발행되기도 전에 1898년 장로교에서 발행한 『찬성시』에 실린 펜워이 번역한 “하느님 아버지 주신 책”(7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² 1900년에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미가』에 실린 “주의 피란소”(44장)에 나타난 “예수씨 다 내소원…”과 “심히 더러운 죄인”(70장)에 나타난 “예수씨 인애하사…” 등에서³ 보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한국 찬송가에 끼친 펜워이의 영향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찬송은 가사와 곡조가 어울려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찬송시이다. 본 논문은 『복음찬미』 1904, 1926, 1939, 1948, 1958년 판을⁴ 중심으로 찬송 가사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과 찬송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복음찬미』가 초기 한국 찬송가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해보고, 한국침례교회의 찬송신학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에 대하여 찬송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² “예수씨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도홀시고…”라고 번역된 후렴 가사를 보면 펜워이의 특징을 볼 수 있다.

³ 『찬미가』(1900)에는 이 찬송 외에 “예수씨 말씀하기를”(74장), “예수씨 거느리시니”(87장), “하늘에 계신 예수씨”(121장), “예수씨 너를 구하네”(142장) 등의 찬송에서 “예수씨”라는 호칭을 볼 수 있다.

⁴ 1904, 1926, 1939, 1948, 1958년 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5개의 『복음찬미』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판을 거듭하면서 약간씩 수정되었으므로, 각 찬송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발행자와 출판연도는 각주 6번을 참고하라.

I. 펜윅과 「복음찬미」

펜윅은 한국 침례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아기독교를 설립하여 30여 년을 이끌어 오면서 그의 실천적 사상을 이 땅에 심었다. 펜윅은 성경 번역, 「복음찬미」와 「만민도혼기별」, 발행, 사경공부 인도, 순회전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선교활동에 힘을 기울였는데, 무엇보다도 선교 초기에 독자적인 「복음찬미」를 발행함으로써 선교의 틀을 마련하였다.

펜윅은 언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은 후 1년도 되지 않은 1889년에 제일 먼저 “주님 날 사랑함을”(Jesus loves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주 기별 내게”(Look and live) 등의 찬송을 번역하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⁵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펜윅은 14곡을 모아 「복음찬미」(1899) 초판을 발행하였으며, 1935년 소천하기까지 5 8년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복음찬미」를 증보하여 발행하였다.⁶

1899년에 초판 발행된 「복음찬미」를 찾을 수 없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20편이 수록된 「복음찬미」(1904)를 보면 새로 첨가된 곡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대동소이함을 짐작할 수 있다. 8년 후 출판된 3판(1912)은 25편, 5판(1921)은 78편이던 것이 6판(1926)에는 252편을 발행함으로써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명실공히 독립된 찬송가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26년 판에는 편집자의 간단한 서문과 찬양에 대한 펜윅의 간단한 글이 삽입되었으며, 가사 제목, 작사자, 작곡자 등, 찬송에 대한 일반적 정보가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그 후 1933년 원산에서 256곡으로 된 수정판이 발행되었으며, 펜윅이

⁵ 「대한기독교회사: 펜윅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허긴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 39 44.

⁶ 「복음찬미」의 출판년도와 장수 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찬한 후 1939년 원산에서 김영관에 의해 274편으로 구성된 7판이 발행되었다. 1926년 판과 비교해 볼 때 1939년 판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등의 새로운 철자법에 의해 가사가 약간 수정되었다. 또한 가사 첫줄 색인을 위해 가사 목록이 수록되었으며, 새로운 찬송 37편이 첨가되었다.⁷

1947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37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해인 1948년 이종덕에 의해 강경에서 해방 후 첫 『복음찬미』(1948)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강경 판은 그때까지 사용하던 『복음찬미』(1939) 중에서 107편을 취사 선택하여 발행했기 때문에 새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복음찬미』의 특징 있는 찬송들이 많이 삭제되었다. 또한 찬송에 대한 정보들, 즉 작사자, 작곡자, 제목, 곡명 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찬송가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복음찬미』의 새로운 의미는 1958년 대한기독교회 장년회에 의해 안동에서 발행된 곡조 있는 찬송가책이다.⁸ 펜워의 찬송을

서명(판수)	출판년도	장수	발행인,발행지	목차 및 서문	특징	기타
복음찬미 제1판	1899	14	펜워,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2판	1904	20	펜워, 원산	後記	무곡	
복음찬미 제3판	1912	25	펜워,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4판	1913		펜워, 원산		무곡	현존하지 않음
복음찬미 제5판	1921	78	펜워,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6판	1926	252	펜워, 원산	서문	무곡	
복음찬미 수정판	1933	256	펜워,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7판	1939	274	김영관, 원산	목차, 서문	무곡	6판을 증보
복음찬미	1948	107	이종덕, 강경		무곡	
복음찬미	1958	323	대한기독교회 장년회, 안동	목차, 서문	악보	

⁷ 1939년 판은 1926년 판의 찬송 중에서 15편의 가사(1, 9, 13, 14, 33, 39, 41, 43, 46, 56, 60, 63, 66, 68, 69장)가 새로운 교체되었으며, 또한 찬송 22편(253-274장)이 새롭게 실리게 되어 결국 37편이 첨가되었다.

유산으로 하는 이 「복음찬미」(1958)는 323편으로 되어 있는데, 1장으로부터 273장까지 중 1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은 1939년 판과 동일하다.⁹ 274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인 323장까지는 그 당시 많이 불리던 다른 교단의 찬송가책으로부터 차용하여 편집을 하였다. 안동 판은 필사에 의한 악보이지만 무척 깨끗하게 사보 되었고, 시대에 알맞게 맞춤법이 대폭 수정되어 있어 가사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찬송을 악보화하지 않아, 펜워이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대부분의 찬송을 비롯한 특징 있는 여러 찬송들의 곡조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¹⁰

「복음찬미」의 첫 발행(1899)이 타 교단¹¹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부분의 찬송이 펜워에 의하여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된 것이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²

⁸ 현존하는 「복음찬미」 찬송가책 중에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곡조 찬송가는 1958년 판이라고 하지만, 노운백 교수에 의하면 1948년에 곡조 있는 「복음찬미」를 사보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때, 1939년에는 무곡 찬송가책뿐만 아니라 악보 찬송가책도 동시에 발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⁹ 1958년 판은 1939년 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76장(할렐루야)이 1939년 판과 다르며, 18절로 된 65장(아버지께 영광돌림)을 6절로 생략한 찬송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¹⁰ 「복음찬미」(1958)에 수록된 총 323곡 중 73편의 찬송이 여전히 곡조가 붙여지지 않았는데, 펜워에 의해 작곡 또는 편곡된 찬송이 37편, 그 외의 찬송이 36편이다.

¹¹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책은 감리교 선교사 존스(George A. Jones)와 로드와일러(Louise C. Rothweiler)에 의해서 1892년에 발행된 「찬미가」이다. 또한 2년 후인 1894년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악보로 된 찬송가책, 「찬양가」가 발행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 최초의 인쇄물은 찬송가책 *Bay Psalm Book* (1640)인 것과 같이, 「찬양가」는 한국 서양음악사의 효시적인 인쇄물이다.

¹² 펜워는 「복음찬미」(1899)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전」(1891), 「약한의 기록헌터로복음」(1893), 「신약

특별히 펜워의 찬송관은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찬송가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복음찬미』(1926) 서문은 그의 찬송 철학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이 찬미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음악의 선율에 맞지 않거나¹³ 주님의 공적을 찬양하는 데 어긋나는 단 하나의 가사나 용어가 있다면 또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뽑혀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II. 복음찬미의 언어적 특징

펜워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성삼위에 대한 존칭과 찬양자에 대한 비칭의 사용, 낱말의 음역, 토속적 표현의 사용, 그리고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에 위해 시의 길고 짧은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장절(長節)과 단절(短節)을 사용하여 찬송을 복음전파 목적으로 사용한 것 등의 언어적 특징에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1. 성삼위에 대한 존칭(尊稱) 사용

성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제나 존칭을 사용한 것은 『복음찬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성부를 “하느님(하나님),” “턴부님,” “성부님,” “여위님(여와님),” 성자¹⁴를 “예수씨,” “주님,” “구주님,” “기독,”

전서』(1919, 1938) 등의 성경을 단독으로 번역하였다.

¹³ 이와 같은 글을 통해서 볼 때, 펜워는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갖고 있었다. 당시 음악을 전공한 이순도의 말에 의하면 펜워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분이라고 감탄한 바 있다. 김갑수, 『한국침례교인물사』(대전: 시와 평론사, 1981), 25.

¹⁴ 『복음찬미』(1926, 136장)에서는 예수의 호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주님,” “목조님,” “목슈님,” “신랑님,” “황태님”과 같이 모두 “님”을 붙여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목조님,” “상던님,” “벗님,” “성조님,” “대왕님,” “선장님,” “어리신 양님,” “신랑님,” “랑반님,” “목슈님,” “황데님,” “대제스장님,” “장조님,” “대장님,” “형님,” “벗님,” 성령을 “숨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⁵

반대로 찬양자 자신을 나타낼 때는 “예수씨 날 스랑흐사니 저는 깃부오”(1926: 41장), “대왕님 예수씨 피가… 제가 조기를 드리다”(1926: 7장), “깃분 찬성히리로다… 저를 직히시겜네”(1926: 8장), “저는 주님 종”(1926: 8장), “저는 아름다운 주님 밋소”(1926: 9장) 등과 같이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춤말의 사용은 초기 한국 찬송가책이나 「통일찬송가」와 비교해 볼 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복음찬미」(1926: 41장)은 존칭과 낮춤말의 확실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	조흔 깃부신 말씀 만코나
아름답고 조흔 말씀중에	예수씨 날 스랑 흐심 데일
후렴: 예수씨 날 스랑흐사니	저는 깃부오 저는 깃부오

¹⁵ 「복음찬미」(1925)의 1장으로부터 100장까지에서 나타난 성삼위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 또는 하나님”(2, 13, 24, 33, 34, 41, 51, 53, 59, 61, 63, 65, 67, 86, 88, 89, 100), “턴부님”(2, 17, 30, 31, 33, 54, 58, 63, 66, 67, 71, 88, 95), “성부님”(34, 36, 58, 92, 100), “여호와님 또는 여위님”(24, 72), 성자를 “예수씨”(1, 2, 4, 7, 8, 13, 15, 17, 23, 27, 34, 38, 41, 42, 44, 45, 46, 47, 49, 51, 53, 60, 64, 65, 72, 73, 75, 76, 82, 85, 86, 94, 97, 99), “주님”(2, 12, 13, 15, 16, 17, 18, 19, 20, 21, 23, 27, 28, 29, 30, 36, 37, 38, 44, 46, 47, 49, 50, 55, 56, 58, 59, 70, 71, 76, 80, 82, 83, 84, 86, 88, 89, 90, 93, 99), “구주님”(9, 20, 21, 27, 28, 35, 37, 38, 39, 42, 43, 44, 48, 51, 53, 58, 60, 62, 68, 71, 73, 76, 77, 83), “괴독”(14, 20, 23, 27, 30, 32, 34, 39, 48, 52, 55, 58, 63, 64, 65, 75, 76, 81, 86, 96, 97, 100), “목자님”(17, 24, 25, 26, 32, 37, 55, 68, 69, 70, 75, 77, 82, 87, 92), “상던님”(33, 53, 75, 77, 81, 82, 92, 95, 96), “벗님”(13, 22, 23, 90, 93), “성조”(2, 51, 116), “대왕님”(41), “선장님”(37), 성령을 “숨님”(1, 5, 34, 36, 40, 42, 52, 54, 56, 66, 75, 86, 90, 93, 95, 96, 100)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씨 날 사랑하사니	저는 참 반갑소
4. 저를 묻져 사랑하심으로	저는 또 사랑하옵느이다
저 대신 형벌 받으셨사니	더 크신 사랑 업습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자를 “예수”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씨”로 항상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존칭을 나타내는 것이다. 후렴에서 “예수씨 날 사랑하사니”(Jesus loves me)에서 “날” 대신 “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존칭 사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절”(저를, me)이 “절”(사찰, temple)로 잘못 이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4절의 첫 낱말(저를)을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두 음절이 되기 때문에 “저를”이라고 낱춤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낱말의 음역(音譯)

펜워는 성경번역¹⁶에 있어서 발행시기에 따라 어법을 달리하고 있지만, 찬송의 번역이나 작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펜워는 인명과 지명 등을 번역할 때에 단어를 그대로 음역하였다. 『복음찬미』에서 사용된 낱말들을 살펴보면 펜워의 성경번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어 한문성정인 『대표위원회역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문과 영어를 우리말로 소리나는 대로 음역한 예들이다.

- 대백(다윗, 1926: 73, 74, 150, 194, 202, 238, 240장)
- 갈닐니(갈릴리, 1926: 84장)
- 갈브리(갈보리, 1926: 88장)

¹⁶ 펜워가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은 『요한복음전』(1891), 『약한의 기록훈디로복음』(1893), 『신약전서』(1919) 등이 있는데 『요한복음전』은 국한문 혼용이며, 『약한의 기록훈디로복음』은 한글을 사용했으며, 『신약전서』는 온전히 한글의 어법을 갖추었으므로, 세 성경이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

살마리아(사마리아, 1926: 96장)
 유대(유대, 1926: 96, 188장)
 랍살로(나사로, 1926: 107장 ?)
 야로살랭(예루살렘, 1926: 149, 150, 163장)
 이마오(엠마오, 1926: 179장)
 나살룩(나사렛, 1926: 190, 224장)
 약슬(요셉, 1926: 194장)
 아당(아담, 1926: 239장)
 보라(바울, 1926: 223장)
 데마태(디모데, 1926: 223장)
 피득(베드로, 1926: 245장)
 할넬누야, 할나루야(할렐루야, 1926: 76, 171장)
 호산아(호산나, 1926: 171장)
 카룻마(1926: 202, 204, 205, 210, 226장)

3. 토속적 표현의 사용

펜윅은 찬송 가사의 중요한 낱말을 표현할 때 확실한 이해를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어휘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속적인 언어의 사용은 펜윅이 갖고 있는 토착화 선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토속적 표현을 사용한 낱말은 다음과 같다.

새악씨(처녀, 1926: 53, 211장)
 대궐(천당, 하나님의 전, 1926: 3, 12, 17, 78, 88, 168, 175, 190, 198장)
 쥬막(거처, 1926: 4장)
 샹던(주님, 1926: 22, 33, 77, 81, 82, 96, 177, 196, 211, 225, 246장)
 황데(임금, 1926: 2, 3, 72, 77, 78, 79, 81, 107, 136, 156, 170, 174장)
 태즈(왕자, 1926: 30, 161, 163장)
 슴님(성령님, 1926: 1, 2, 5, 34, 36, 40, 42, 52, 54, 56, 66, 75, 86, 90, 93, 95, 96, 100장 등)
 형님(예수님, 1926: 36장)

즈미(재미, 1926: 45, 160장)
 갈나노아(1926: 34, 62, 184, 225, 236장)
 상허던 통소(갈대, 1926: 80장)
 매양(항상, 1926: 2장)
 아논바 열미(선악과, 1926: 140장)
 빈들(광야, 1926: 134, 172, 175, 218장)
 종장결(종시장, 1926: 81, 161장)
 계집으희(계집 아이, 1926: 85장)
 텃당 호적(생명책, 1926: 95장)
 시암(샘물, 1926: 17, 105장)
 량반(양반, 1926: 123, 179, 203장)
 진실 기(1926: 82장)
 동모(1926: 96, 177, 179장)
 늬(1926: 135, 140, 144, 157장)
 버러지(1926: 155장)
 임즈님(1926: 212, 218장)
 심판장(1926: 209, 218장)
 도공님(1926: 221장)
 것구런 차(1926: 164장)
 새딕(1926: 179, 198, 204장)
 틀닌신(1926: 229장)

4. 장절(長節)과 단절(短節)의 사용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통일찬송가」는 몇 개의 통절형식으로 된 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유절형식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송영과 영창을 제외한 모든 찬송가들은 4절로 구성된 것이 보편적이다. 초기 한국 찬송가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일찬송가」와 비교해 볼 때 「복음찬미」에서는 장절과 단절을 많이 사용하였다.

1절¹⁷ 또는 2절로 구성된 찬송시는 모두 26곡으로 10.3%이며, 5절 이

¹⁷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일찬송가」의 短節은 송영과 영창인데 반해 「복음찬미」(1926)에서 실린 단절 찬송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내용

상으로 구성된 찬송이 95곡으로 37.7%이다. 결국 장절과 단절이 찬송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나 된다. 특히 7절 이상의 장절이 10%에 이르는 것은 찬송이 형식보다는 내용 전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장절을 많이 사용한 것은 『복음찬미』가 갖는 독특한 구성이다.

『복음찬미』(1926)에 나타난 장절과 단절은 다음과 같다.

도표: 『복음찬미』(1926)에 나타난 장절과 단절

절 수	찬 송
1절(10곡) 4%	78, 99, 153, 178, 186, 195, 196, 215, 219, 242
2절(16곡) 6.3%	25, 80, 94, 97, 113, 130, 131, 157, 165, 180, 203, 204, 224, 226, 230, 247
5절(47곡)18.7%	8, 12, 17, 24, 26, 41, 56, 58, 60, 61, 63, 73, 77, 82, 90, 102, 107, 108, 116, 119, 121, 125, 126, 132, 144, 160, 164, 169, 172, 173, 175, 177, 181, 191, 192, 202, 206, 221, 222, 228, 232, 234, 238, 243, 245, 246, 249
6절(23곡) 9.1%	2, 27, 45, 46, 64, 67, 68, 100, 105, 150, 154, 159, 183, 188, 205, 208, 214, 223, 229, 233, 237, 240, 251
7절(9곡) 3.6%	33, 34, 40, 52, 74, 114, 182, 225, 244
8절(6곡) 2.4%	30, 72, 79, 89, 93, 140
9절(5곡) 2%	36, 85, 147, 227, 252
10절 이상(5곡) 2%	65(19절), 76(17절), 88(10절), 187(12절), 194(14절)

의 찬송들이다. “초집이나 장막”(78장), “회장 안에 계신 주”(99장), “시벽에 제 열혜 계시는 구주”(153장), “죽갓소 낮들 말 크게 흐며”(178장), “구주님으로 가서 영접 하옵네”(186장), “깃불 일 잇스니”(195장), “원슈 한아 확실잇되”(196장), “라살룩 뵈에 셔신 심명”(215장), “기독 내 주님”(219장), “저는 형인 턴당 가울 즈”(242장)이다.

III. 복음찬미의 내용적 특징

1. 교육을 위한 문답 찬송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음악 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music), “음악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music), 그리고 “음악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music)을 실현하는 것이다.¹⁸ 음악 안에서의 교육은 교인들의 음악적인 기술, 자세와 이해, 그리고 지식의 발전을 위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위한 교육은 교인들의 음악지도의 기교와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통한 교육은 교회 안에서 비음악적 목적(nonmusical ends) 도달을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중을 위해 만들어진 찬송가는 음악적인 면은 물론이고 시적인 면에서 볼 때 구분하여 놓지 않아도 문답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다. 시의 형식, 음악의 형식, 화성의 진행, 마침의 구조 등이 그렇다. 그러나 찬송가책의 편집에 있어서 교창 할 수 있도록 찬송가책에 문답찬송을 표시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외국의 복음성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태그(Tag) 형식의 찬송을 제외하면 초기 한국 찬송은 물론이고 현대 찬송가책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펜윅이 문답찬송을 사용한 것은 찬송을 비음악적 목적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⁹

12절로 되어 있는 “저희들은 예수교 하네”(1958: 187장)의 문답찬송은 다음과 같다.²⁰

¹⁸ William L. Hooper, *Ministry & Musicians*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86), 16.

¹⁹ 『복음찬미』(1926)에는 186장, 187장, 237장이 문답찬송이며, 『복음찬미』(1939)에는 14장, 186장, 187장, 237장, 269장이 문답찬송인데, 이 모든 찬송이 펜윅이 작사한 찬송들이다.

²⁰ 이 찬송은 문답형태로 되어 있어서 교창될 수 있지만 노윤백

1. 문: 저희 사람들은 예수교 하네
저희 사람들은 예수교 하네
주일보고 회당 다니 옴으로
천당 가을 바람
2. 문: 웨 그 말씀 저희게 하십니까
웨 그 말씀 저희게 하십니까
자꾸 여러 사람 그말 하는데
곧 예수교 말씀
3. 문: 어찌 마귀는 그렇게 하올가
어찌 마귀는 그렇게 하올가
기독교보다 힘은 더 있으리까
참되지 못할 일
4. 문: 그런 말씀 무슨 말씀 됩니까
주일 마땅 지킬 것이 올시다
성경 찬미 가지고 회당 가오
그밖에 못할 일
5. 문: 저희는 그 말씀 믿지 않은 자
그런 말씀을 침드르 옵니다
듯는대로 몹쓸 행실 금하며
주일 지킬 옳음
6. 문: 그러하신 즉 선생은 설명하오
아온 후에 따라 갈 것을시다
복음대신 아무 뜻도 못됨은
헛소리올시다
7. 문: 그리하신 즉 행하온바 없이
하나님의 아들 계시면 되메
어찌하여 되실는지 모르니
알게 해 주시오
8. 문: 그것 참 고마운 말씀올시다
좀 또 밝히 설명하여 주시오
- 답: 그런 생각하지 마세
그런 생각하지 마세
몹쓸 죄인들은 저희
구주 마땅 소용
- 답: 네 그 증참 많이 하오네
온 세상은 같이 함은
틀린 신을 믿게 하니
멸망할 원수됨
- 답: 다른 원수처럼 하니
허락업시 억지한 자
구주님은 허락없이
못 구원하실 주
- 답: 복음 이치 그렇찬소
복음대로 공회하나
그 계시는 기독교에서
유하실 터인 대
- 답: 예수교는 꼭 그래요
세상 그대로 하되
숨넘겨서 참도 대로
설명하시잖소
- 답: 예, 요한일서 오장에
십 이절 말씀 있음네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면 녀넉하오
- 답: 요한 일장 십이절에
밝히 기록하였음은
부주 아들 되실 허락
영접자게 주심
- 답: 라마 편지 사장 오절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교수에 따르면, 회중은 모든 행을 문과 답을 교창하지 않고 모두 같이 불렀다고 한다.

- | | |
|---|--|
| 아드님을 영접하옵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오 | 옳게 하신 구주님을
믿게 되옵 것뿐 |
| 9. 문: 어찌하여 그뿐만 되오리까
의 없이 죄를 또 끊지 않일 것
음행 도적 술 취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찮소 | 답: 그것 천부 크신 은혜
또한 천부 아신되로
천하 인간 크신 죄는
그 아들 대적하옵 |
| 10. 문: 젤(제일) 큰 죄는 그것 같이 되오며
젤 고맙고 젤 큰 일 무엇이오
설명하여 저희는 곧 하리다
구주께 순복하오 | 답: 아들 있는 자는 생명
그와 함께 천부께서
모든 것을 주실 천부
풍성하실 천부 |
| 11. 문: 그러하신 즉 저희는 틀리오
아드님을 어찌 얻으오리까
기도 없고 옳은 일 또 하옵 것
없으면 어찌하오 | 답: 기뻐 감사하옵 것은
순복하옵 때 되실 일
아드님을 영접하매
숨님 주실 은혜 |
| 12. 문: 숨님 주심은 웬 침에 되실가
두 번 하신 후 주실 줄 아온되
오래 힘써 기도 많이 하온 후
주실 줄 알았오 | 답: 안이올시다 주 법은
아들 영접하옵 적에
천부자로 되옵 허락
줍고 숨님 주심 |

2. 해설을 위한 주석 찬송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spirit)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mind, understanding)으로 찬미하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펜윅은 가사의 이해를 위해 찬송에 주석을 함으로써 찬송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찬송 주석은²¹ 찬송 연구를 위하여 찬송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

²¹ 일반적으로 회중찬송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성경구절이 제시된다. 찬송 주석은 詩의 행과 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성경말씀에 의해 주석을 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와트의 “햇빛을 받는 곳마다”(통일 52장)는 시편 72편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절: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만 찬송 편집자나 작사자에 의해서 찬송가책에 내용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직접 첨가한 것은 세계 찬송 역사에 전무후무(全無 後無)하다.²²

펜워는 초판부터 “유기별 내게 잇슴 홀나르야” 『복음찬미』(1904: 1장)에서 “홀나르야”를 사용하며, 이 낱말이 생소한 한국의 성도들에게 “홀나르야”는 말은 유대국의 감사하다는 말이라”고 찬송가 옆에 주석을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설 찬송의 극치를 『복음찬미』 1926년 판과 1939년 판에서 볼 수 있다. 펜워는 “스랑하시는 숨님”(Spirit of Love, 223장)에서와 같은 행마다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찬송이란 단순한 시(詩)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였다. “기도 숨님께 읊시여”(The Spirit of Prayer, 225장)에서는 행마다 주석을 하였으며, 한 절이 끝날 때마다 강조한 핵심 구절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절이 끝난 후에는 찬송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중심으로 하나의 설교문과 같은 장문을 삽입하였다. 225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성년으로 기록하신	마가(마가복음) 11:17
턴부의 기도당	마가(마가복음) 11:17
새로 세우신 성년은	이불소(에베소서) 2:21 23, 가림다전(고린도전서) 6:19
숨기도당 안노	라마(로마서) 8:26 27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시편 72:5, 8
2절: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시편 72:15
3절: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시편 72:11
4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시편 72:18 19

²² 펜워는 찬송뿐만 아니라 그가 번역한 성경의 여러 곳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숨넘피셔 즈기당에	라마(로마서) 8:26 27
기도 안 흐시면	이불소(에베소서) 4:30
합당지 안이 흐올당	이불소(에베소서) 4:30
갈나노흡소서	텃살라니가후(데살로니가후서) 2:13

223장 1절에 주석으로 달아 놓은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보라씨, 데마태 처럼 겁신 안주신디	데마태후(디모데후서) 1:7 ²³
스랑 흐시는 숨넘을 주샤니	
감사하오 숨넘을 주샤니	
그 스랑흐시는 열미	가랍태(갈라디아서) 5:22 ²⁴
겁신을 쫓겠샤	요한일서 4:18 ²⁵
스랑 자라실 숨넘	요한복음 15:5, 10 ²⁶

²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 “하나님께서 저희게 겁신을 주시지 안이 흐섯고 오직 권능흐신 신과 스랑흐신 신과 생생흐신 신을 주섯신 연고라”(펜워번역/ 신약전서, 데마태후 1:7).

²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갈 5:22). “오직 성신님의 열매는 스랑흐고 즐거움과 평안흐심과 견디는 것과 순흐시는 것과 보호흐심과 밋음과”(펜워번역/ 신약전서, 가랍태 5:22).

²⁵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겁이 스랑흐심에 잊지 못하고 오직 온전흐시는 스랑흐심이 겁을 쫓츠심은 겁은 고생잇슴인지라 겁잇는 사름은 스랑흐심에 맞초심을 밧오오지 안이흐였느니라”(펜워번역/ 신약전서, 요일 5:18).

²⁶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름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5, 10),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누구던지 내 안에 잇고 내가 더 안에 잇는 사름은 열매 열닌 거시 만코 너희는 나엽시 아모 일도 행홀

이것뿐만 아니라 179장에서는 찬송 마지막에 찬송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것은 입술로 부르는 습관적 찬송에서 벗어나, 가사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창을 위한 장단(長短) 표시

펜워는 그 당시 주로 사용했던 무곡(無曲) 가사와 곡의 어울림이 실라빅(syllabic)²⁷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찬송가에 표시를 함으로써 찬송가의 올바른 가창을 도왔다.

- (1) 장(長, 1904): “그 ”(7장)²⁸, “주 ”(11장), “조곰 후” (13장), “아 멘”(18장)
- (2) 단(短, 1904): “부오, 가오, 호오, 데일”(1장), “아오, 호오, 여오, 가오”(2장), “식암, 호오”(3장), “아오, 호오”(4장), “미우, 가오”(5장), “쉬오, 누오, 호오, 주오, 사오”(6장), “사오, 보오, 아오”(9장), “호오, 므음”(10장), “므음, 호오”(11장), “므음”(12장), “호오”(13장), “나오”(14장), “호오”(15장), “가오, 보오”(16장)
- (3) 뉴마틱 표현²⁹: “근심 춤 만흔 자 **어**데 땡긴지 즈비흐신 보좌압 업디요 압제 상쳐 본뎀 **이리가**져 올 것 **곳**치시지 못호올 일 업신

수 업습일너라... 너희가 내 명을 직히면 내가 내 아버지 명을 직히고 스랑호신 안에 잇는대로 너희도 내 스랑호는 것 안에 잇스리라”(펜워 번역/ 신약전서, 요한복음 15:5, 10).

²⁷ 실라빅(syllabic)은 1개의 음절에 1개의 음표를 붙이는 것이며, 뉴마틱(neumatic)은 1개의 음절에 2-4개의 음표를 붙이는 것이며, 멜리스마틱(melismatic)은 1개의 음절에 여러 개의 음표를 붙이는 것이며, 삼모딕(psalmodic)은 1개의 음표에 여러 개의 음절을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

²⁸ 성경(요한은 그 빛촌안이려니와 그 빛출위호야증거호오니라 요 1:16)과 마찬가지로 대두법(擡頭法)을 사용함으로써 존칭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²⁹ 1939년 발행된 「복음찬미」에서 뉴마틱 표현으로 사용된 찬송으로 41장, 57장, 64장, 71장, 72장, 152장 등이 있다.

데”(1939: 41장)

“영광 태자 도라가신 십조를 숯혀 보을 때에 리만흔중 귀흔 것과
제공되 온통 업쉬녀임”(1939: 57장)

“쥬 귀흔신 터에 쥬초 돌 노신지 성도들 위흐샤 엇지 든든호오
미리 흐신 말씀에 엇더케붓쳐 더 붓치섯실가 구흐심 밧오라
쥬께 가을 즈로 더 못흐실네”(1939: 64장)

4. 주제 강조를 위한 찬송시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지만 찬송하는 자들이 믿는 신앙과 신조,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³⁰

펜웁은 찬송을 주제 강조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보고 그의 신앙적 내용을 찬송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1) 성경을 주제로 한 찬송: 성경을 보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

“그리하신 즉 매일 보며	성경을 매일 보오
성경을 보오	주께 순복 매일 받으실 복” ³¹ (1939: 40장)
“매일 성경을 보오	매일 성경을 보오
매일 성경을 보오	그 사랑 안에 유할 자”(1939: 123장)
“다만 맘을 먹으도	부족하올 일 있네
매일 마땅	성경 보올 일 있네
다섯 열 장 보오나	숨님 혼 먹이실네

³⁰ 초기 기독교 찬송의 역사를 보면 이단을 공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찬송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의 찬송 역시 힐러리(Hilary)처럼 이단을 공박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다. William J. Reynolds & Milburn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87), 7.

³¹ 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음찬미」(1958) 가사를 참고했다.

신복 너넨	받으 올 자 되리라”(1939: 217장)
“성경을 보오 또 성경을	보오 성경 보오 성경 보오
매일 너넨 거두면	심명케 하실 주신 즉”(1939: 270장)
“그 명하신 대로	제가 하올 때 매양 평안함
성경을 너넨 보올 때에	맘 기쁘고 평안함”(1939: 231장)

펜워이 번역한 “제 맘에 기쁘심” 『복음찬미』(1939) 231장의 4절은 여러 찬송의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많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³²

(2) 재림을 주제로 한 찬송: 재림의 시기, 이중재림 등을 나타냄

“여 때 세상 끝에	각 사람에게
복음전과 못 하오되	하올 수 있네
할 자리 남은 것	얼마나 없으도
급히 떠나 예수씨로	증참하옵네
기쁘고 기쁘니	표만 삼네
주제님 예수씨	쉬 오시리라
첫 번 구속하시라	제사했으니
두 번 고난 없을 터니	감사 토다”(1939: 33장)
“생명 책 기록하신 자	마지막 메신 후
공중에 자기 신부와	잔치하실 신랑”(1939: 56장)

³² 이 찬송을 『통일찬송가』의 가사(468장)와 비교해 보면 펜워이 성경 읽기를 강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주리로다”(통일찬송).

“그 명하신 대로 제가 하올 때 매양 평안함 성경을 너넨 보올 때에 맘 기쁘고 평안함”(복음찬미).

이 외에 『복음찬미』에 나타난 성경 읽기의 강조는 110장, 140장, 142장, 217장 등에 나타난다.

“웁니다 웁니다 저를 위하사 웁니다 웁니다 신랑 원하심 “영광서 오시다가 여때 원하신 신부 세때우 세때우에 복노아 주실 신랑 “신복국 신복국 황제 두 번 강림하실 때 모든 일 위하실 뿐 “강림하사 강림하사 다시 살게 다시 살게 가신대로 두 번째 자기께 어린아이	아름다운 신랑 오실 예수씨 이 신부 볼 것도 없으되 원하웁니다”(1939: 85장) 약조하신 곳으로 공중에 만나 올 날 함께 통일하시고 길게 진실토다”(1939: 89장) 세우실 영광국 악함 온통 없이 하실 주 마치시게 기도 하옵”(1939: 194장) 아버지 주신 자 공중 피실 주 공중에 강림하사 다 부르실 주”(1939: 222장) ³³
---	--

(3) 상전과 종의 비유: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강조함

“그러오나 만민황제 영화등극 하실 날을 이 일을 쉬 이루도록 은혜로 권능 하시면 “예수씨 제 상전님 보배 피로 샀으니 “이왕에 이 불쌍한 종 저를 종시장에 팔아 길에서 양반 맞아서	뵈기 원하웁니다 급히 세우고 마칠 세 이 같은 종 쓰리까 기쁠 종 되어리다”(1939: 50장) 저는 종 되엿삽네 귀하신 임자 기독”(1939: 53장) 임자 독하오 매고 끌어 가는대 살 맘 있다오
--	--

³³ 이 찬송은 「통일찬송가」 299장과 「합동찬송가」 581장에 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이다.

귀하신 낮을 보오니	섬기올 맘 만토다
속양하신 기독 제 상전	종장에 가사 값 내시며
귀하신 손이 풀어시사	날 속양 하셨네”(1939: 81장)
“빈손으로 오는 인생	상전님 대접할가
명 하실대로 맘 혼 영	비치올 중 원토다
귀하신 숨님으로서	소용 중되게 합사
목자님께만이라도	진실 개로 합소서”(1939: 82장)
“원수 하나 확실있되	관계 찹습네
상전님 권세 주시니	도망할 원수
상전님이 종사신 값	일을 때 원수
견디지 못하올터이니	도망합니다”(1939: 196장)

5. 이야기식 찬송³⁴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의 교훈을 얻도록 여러 사건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성경과 같이 이야기하듯이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은 내용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찬송가의 역사를 볼 때 펜윅뿐만 아니라 간혹 찬송작가들은 이야기식 찬송을 만들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³⁵ 펜윅은 이야기를 위해서 장절을 사용하였으며, 음악의 형식과 가사의 내용이 잘 어울리어 가사전달이 잘되고 내용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이야기식 찬송을 여러 편 만들었다.

³⁴ 이야기식 가사로 된 찬송이 『복음찬미』(1926)에는 81장, 85장, 187장, 236장, 237장 등이 있다.

³⁵ William J. Reynolds & Milburn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x xi.

- | | |
|--|---|
| 1. 조고만 계집아이 있어
생긴 자미 없고 혈벗어 | 산골에 살든대
누구나 원하옵니까 |
| 2. 어떤 날에 양반 지나서
교만함이 없이 순하니 | 먼 나라서 오사
아이와 쉬 친하시네 |
| 3. 얼마나 지나서 이 양반
아이와 함께 가기 원하되 | 떠나갈 터 인대
그 때 같이 못 가오네 |
| 4. 작별하신 때 허락하사
걱정 말고 집 지은 후에 | 멀리 갈 터이니
널 위하여 오겠네 |
| 5. 때가 가까이 되올 적에
자꾸 멀리 쳐다보다가 | 높은 등에 서서
오시기를 고대하오네 |
| 6. 매일 서서 고대하오니
어떤 아침 일찍 나가니 | 맘 심심 돼가네
먼 흰 구름 중에 붉은 |
| 7. 새빨간 별 같으신 빛을
점점 더 가까이 오시니 | 놀라서 보오니
견디기 어려우네 |
| 8. 신랑 낮을 녀 녀 아온대
영광 너무 환하셨으니 | 기쁨 여취여광
아이 눈을 부시였네 |
| 9. 다만 제 신랑으로 아노니
더 참고 견딜 수 없이
옵니다 옵니다
저를 위하사 오실
이 신부 볼 것 조금도 없으되 | 무섭잖고 기쁘음
소리질러 기뻐 뛰며
아름다운 신랑
예수씨 옵니다 옵니다
신랑 원하심 원하옵니다(1939: 85장) |

10절로 구성된 271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약백, 마서 (모세), 대벽(다윗), 단열(다니엘)”의 생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단열에 대한 노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단열은 지미 많겠나이다 사람 볼 때 동간문 열어서 피득의 증참과 같으온 일	자기 먼저 안 생각하오 보아도 주께 순복 사람보다 주께 순복
--	---

옴으신줄 확실아오신지	주님께 인복 받음
그러하신 즉 인복 원한 자	단열처럼 진실할가
신복 주옵실 여위님 법은	먼저 주께께 순복(8절)

글세 고생 피하지 못하되	고난 소용퍽 많도다
사자 중 던심 받을지라도	그 입 막히실 주님
단열처럼 고난 다 받은 후	신복 많고 인복 많소
여위님께 순복하올 적에	매양 값으실 주께
겁나는 것은 겁신 하올 일	매양 육신 생각하네
여위님 먼저 생각하올 일	복 확실 받으올 뜻”(9절)

6. 동일인에 의한 작사와 작곡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선교사들은 예배에서 찬송 부르기를 위해 찬송을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초기 한국 찬송가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펜워는 선교 초기부터 번역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찬송시를 작사, 작곡하여 사용하였다. 1958년에 출판된 『복음찬미』의 323곡 가운데 46곡³⁶을 자신이 작사, 작곡하여 사용한 것은 찬송에 대한 그의 관심과 재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³⁶ 『복음찬미』(1958)에 나타난 펜워의 찬송시와 곡조는 다음과 같다. (1) 펜워가 작사, 작곡한 찬송(편곡 포함): “17, 36, 39, 46, 79, 81, 82, 85, 86, 89, 90, 91, 93, 95, 97, 98, 100, 101, 102, 105, 124, 132, 139, 140, 142, 153, 157, 163, 178, 179, 186, 196, 202, 204, 209, 230, 237, 247, 248, 268, 274”(이상 41곡). 1958년 판에는 “79”장만 곡조가 나타나 있음. (2) 작곡만 한 찬송: “26, 50, 87, 104, 134”(5곡).

IV. 「복음찬미」 가사의 문제점

1. 낱말이 통일되지 않았다.

언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예배의 중요한 낱말들이 한 찬송가책 안에서도 표기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찬송가 편집이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낱말을 예로 들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등이다. ‘할렐루야’의 표기에 있어서 「복음찬미」(1906)에선 ‘할나르야’(9장), ‘할넬누야’(19장)로 쓰였으며, 1939년 판에는 ‘할나르야’(54, 274장), ‘할넬누야’(76장), ‘할나르여’(149장), ‘할나루야’(171장)로 사용하였다.

‘여호와’에 대해서도 여러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찬미」(1906) 찬송에는 ‘여호화’(7장), ‘여오화’(17장)를 사용하였고, 1926년 판에는 ‘여위님’(138, 149, 238장)과 발음이 다른 ‘여와님’(24장)을 사용하고 있다.

1926년에 발행된 「복음찬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33, 34, 51장을 비롯한 대부분)과 ‘하느님’(2, 13, 24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렐루야’에 대해 다양한 표기(할나르야, 할넬누야, 할나루야, 할나르여, 할나르야)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낱말의 통일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외래어에 대한 정해진 표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여호와’에 대한 몇 가지 표현(여오화, 여호화, 여위님, 여와님)과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나님, 하느님) 역시 발음과 존칭에 대한 문제 등에서 낱말에 대한 통일성의 결여에 의한 것이다.

2. 존칭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같은 찬송 안에서도 찬송하는 자를 나타낼 때 “저는” 또는 “나는” 등과 같이 호칭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저를”의 준말인 “절”을³⁷ 사용하지 않고 “날”을 사용한 것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

³⁷ 「복음찬미」에서는 찬송자를 나타낼 때는 주로 낮춤말을 사용

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찬송에서 볼 수 있듯이 존칭 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일관성 없이 존칭을 사용한 찬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와님은 제 목즈니, 쓸 것 업시 못하…: 날 쉬게 하시네”(1926: 24장)

“제 목자께서 날 멕이시며…: 목자님께서 날 인도하시면…”(1926: 25장)

“예수씨 날 사랑하시니 저는 깃부오 저는 기부오…: 내가 알면…”(1926: 41장)

“나는 붉은 길 가오니…:저는 공뢰 업셔도…: 날 위하샤 곳 잇네…:제 신량은 영광 유지…”(1926: 84장)

“찬송 찬송호을 일 잇습네 저로 도라 가신 구쥬님께…: 내 죄를 아들끼 다붓치심…”(1926: 181장)

“나의 가슴 압흔 것 셴하네 엇지 깃분지 난 모름네…: 내 죄 위하릿가…: 제가 즈귀를 드리다”(1926: 7장)

3. 번역이 미국식이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듯이 다른 나라의 글을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서양 언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 특히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짧은 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의 차이는 물론이고 강박과 약박에서 오는 음악어법이 다르고, 관사 등으로 인한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번역의 문제점들이 『복음찬미』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운율에 관한 것인데, 실라빅으로 처리해야 할 음절을 한 음표에 두 음절을 사용함으로써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³⁸ 예를 들

했으며, 불교의 절과 혼동할 것 같아 “절” 대신에는 “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곳에서는 “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호칭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음찬미』(1939)에 “절 쉬게 하시네 절 위로하시네”(24장), “절 사랑하심 생각 호을 때…: 절 위하샤 죄 덩흔 법”(56장), “절 위하샤”(62장), “절 사랑 하신… 절 주셨신 영광을”(65장), “절 붓드셨네”(166장) 등이 있다.

어 많이 쓰는 낱말은 “가오”(1939: 2, 14, 25, 34, 35장 등), “호오”(1939: 3, 6, 11, 12, 15, 17, 18, 19, 20, 22, 24, 34, 36, 41, 42, 43, 44, 45, 46, 48, 49, 51장 등), “아오”(1939: 3, 13, 19, 42, 44, 47, 49장 등), “나오”(1939: 5, 23장 등), “보오”(1939: 13, 40장 등) 등이 있다.

어순에 관한 문제로는 부정문을 사용할 때 수식어의 사용이 어색하다. “단열은 즈미 만습느이다 즈기 몬져 안 생각호오”를 “단열은 즈미 만습느이다 즈기 몬져 생각아니호오”(1939: 271장)라고 옮겨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원어와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번역을 볼 수 있다. “흙 너너 가을자··”(1926: 76장 12절, 97장 후렴), “흙제 새 집 신랑 대궐”(1926: 175장 후렴), “제흙 뵈게 호실 까지··”(1926: 200장 3절), “제흙셔 멀니 잇는 즈··”(1939: 267장 1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흙은 영어의 Home을 말하는데 이것은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흙셔 멀니 잇는 즈”는 “황제(하나님)가 사시는 집(천국)에서 멀리 있는 자(인간)”를 의미한다.

4. 찬송시가 난해하다.

언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해할 수밖에 없음은 시사하지만, 초기 한국 찬송가와 비교해 볼 때 노랫말이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복음찬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다. 『복음찬미』의 내용이 특징적이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려지지 않은 것은 가사에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³⁹

예를 들어 “홍암 송아지와 쓴 풀도 귀하신 향기와 썩어서 불로 온통 붙이온 재로 물 만 드웁네 그러신 주 이름 그 높으신 이름 세대우 세대

³⁸ 이런 경우 ◡표시를 사용하여 한 음표에 두 음절을 넣으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³⁹ 1958판 『복음찬미』 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음찬미』가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가사의 난해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실 동안 찬송 돌니옵”(1958: 9장)은 이해가 쉽지 않은 찬송이다.

또한 초기 한국 찬송과 비교해 볼 때 『복음찬미』가 찬송시의 단순성과 회중성에서 비교가 됨을 발견할 수 있다. 『복음찬미』(1904: 17장)와 『찬성시』(1898: 75장)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1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복음찬미』
 “여오화님 내 목자니
 쓸 것 업시 못해
 무성흔 꿀청슈가해
 날 쉬게 흠내다”

『찬성시』
 “하느님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홀 것 업네
 나를 방초 동산에서
 편히 눕게 하시도다”

결론

어떠한 사건을 평가하든지 후세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펜워에 의해 번역, 작사, 작곡, 편집된 『복음찬미』 역시 이러한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펜워의 업적에 대해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음악적인 면, 특히 찬송가학적인 면에서 볼 때, 펜워가 공헌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펜워의 신학교육 배경⁴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린다면, 그는 찬송 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찬송을 복음전파의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하였으며, 찬송 문화와 토착화라는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한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찬미』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⁴⁰ 신학 교육에 대하여 펜워 자신은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펜워, 『대한기독교회사』, 32. 최봉기 교수가 지적했듯이 펜워에 의해 이루어진 성경번역, 찬송번역과 작사 등을 볼 때 그의 탁월성은 정규 신학교육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 준다. 최봉기 편, 『말씀 C. 펜워』(서울: 요단출판사, 1996), 262.

찬송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펜윅은 「복음찬미」의 서문에서 복음적 찬송관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찬송의 가사에는 찬송의 대상에 따라 “하나님께”(to God) 말씀 드리는 것과 “인간에게”(to Man) 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복음찬미」에 실린 대부분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찬송보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관하여”(about God) 증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복음찬미」에 나타난 찬송의 대부분이 복음찬송(gospel hymns, gospel song)으로 구성된 것은 그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교적 사명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던 사역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초기 한국 찬송가책들이 「찬양가」, 「찬미가」, 「찬성시」, 「성회송가」 등의 책명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펜윅이 찬송가책의 이름을 「복음찬미」로 하고 있는 것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찬송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펜윅은, “성도는 찬송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그들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는 여러 방법을 「복음찬미」에 소개하고 있다. 교회음악은 “잘 쓰여져야”(well written) 하고, “잘 선택되어야”(well chosen) 하며, “잘 노래되어야”(well sung) 하는 3단계가 모두 중요한데, 펜윅은 교육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인 “잘 노래되어야” 하는 노래하는 방법(how to sing)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용적 특징에서 살펴 본 “문답 찬송, 주석 찬송, 찬송에 장단 표시, 주제 찬송, 동일인에 의한 작사와 작곡” 이 모든 것이 찬송의 교육과 관계가 있다.

찬송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각처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찬미대를 조직하여⁴¹ 교육시킨 후 지방을 순회하며 찬송하였던 것을 보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유서를⁴² 통해 찬송 교육에 대한 그의 열

⁴¹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교회사」(대한기독교침례회총회, 1961), 41.

⁴² 1929년 8월 29일에 쓰여진 펜윅의 유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묘하옵신 구주 예수 기독께서 찬송하올 복음찬미 판각하올 것으로

정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로, 찬송은 토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속적인 언어가 사용됨으로써 찬송의 토착화에 힘을 썼다. 펜워의 토착화에 대한 평가 역시 결과론적 면에서 볼 때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지만, 찬송에서 토속적 언어를 사용한 것과 펜워가 작사한 가사에 민요(old song)에 맞추어 노래한 것을 보면 한국의 문화와 토착화에 대한 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니 ‘숨남’으로 부르는 것이 원어에 합당하다”하여 그대로 실친 것은 토착화에 대한 그의 사상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펜워가 찬송번역과 작사, 작곡을 통해 초기 한국 찬송가 발전에 지대한 족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교단의 배경 때문이라면 이제 그가 편집한 『복음찬미』는 재평가되어야 하며, 『복음찬미』가 남겨 놓은 “복음주의적 열정,” “다양한 방법의 찬송 부르기,” 특히 “찬송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새 시대에 우리들에게 놓여진 과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찬송 신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쓰일 것이로소이다…. 내 원하고 작정한 것은 지금 사는 집터와 동산을 찬미 공부하는 남녀학생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덕가에게 담당하여 쓰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내 피아노를 동아기독교 안에 주님께서 갈라놓으시고 찬미하올 아희들 곡조 공부하도록 안 반장 덕가에게 맡겨 주나이다…. 찬미 공부하는 남자들 농사일…” 등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복음찬미 출판과 찬송 교육에 관한 것이다.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보』, 55 56.